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 신이 없다는 것은 신의 실체를 몰라서 하는 말

지난 3월 작고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유작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Brief Answers to the Big Questions)'에서 "신은 없다. 세상의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No one directs the universe, the simplest explanation is that there is no God.)"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 세기 동안 나와 같은 장애인들은 신이 내린 저주를 안고 살았다"면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창조주로서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유일신론에서부터 일체 만물이 신이라는 범신론과 다신론까지 수많은 이론이 있다. 또한 호킹 박사처럼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필자는 신에 대한 답문에 대하여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가릴 만한 지식과 지혜가 없다. 다만 여기서 조희성 구세주께서 설파하신 신론(神論)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했다

조희성 구세주의 말씀에 따르면 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이고, 반면 마귀의 신은 사탄의 신이다. 두 신은 철천지원수처럼 서로를 죽이고 싸워왔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출현이 하나님의 신이 마



신이 없다고 말한 호킹

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에 연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원 전 서부터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마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사로잡아 포로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영육(靈肉)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담은 남자가 되었고, 해와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여 마귀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일체 만물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은 소멸의 길로 들어서는 운명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현 세상은 마귀의 신이 다스리는 세계이고, 하나님은 무능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므로 호킹이 말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우주를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직접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견해는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마귀의 신은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신

이므로 마귀의 신의 지배 아래 우주가 있지만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시 마귀에게 승리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위대한 사건을 유념해야 한다. 마귀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아왔던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을 이기는 대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 10월 15일자로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태초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회복하여 삼위일체로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지전능한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1980년 10월 15일부터 이 우주를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마귀가

완전히 전멸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마귀를 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인간들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귀의 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까닭에 죽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득불 그 마귀들과 생명을 분리시킨 후 분리되는 순간 그 마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우주를 조종하는 이기신 하나님 출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신이 1980년도에 나타났다. 그러나 마귀의 신도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속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 차근 차근 마귀의 신을 박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5대공약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하였다. 공산주의를 없앴으며, 한국에 태풍이 못 오게 하고, 여름 장마를 없앴으며, 풍년들게 하고, 남북한 전쟁을 막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은 일취월장하여 무량대수 배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마귀들이 그 능력을 따라올 수 없으므로 하나님에게 백전백패 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마귀를 소탕박멸하게 되면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천정시대가 되어 이기신 하나님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으로 온 세상 만물이 영생을 누리는 개벽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즉각 수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수행을 성심성의껏 해야 나의 영이 살지고, 나의 환경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롭고 만족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각자의 오라(AURA), 전자기장의 주파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멀마경을 외우고 찬송을 하고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며 웃음 속에 생활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오라, 전자기장의 주파수를 높여 점점 하나님으로 변화해가면서 풍요로운 생활과 평화로운 마음 상태로 유지하여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금옥 승사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45> “마귀의 영은 쫓겨지고 갈라지는 성품”

사람은 누구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나요, 내가 바로 상대방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윗사람이고 나이가 적다고 아랫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 속의 피의 나이는 모두 똑같이 동갑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계급제도를 가지고 있는고로 잘못된 도덕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분쟁과 다투어싸움과 데모가 그치지 않

는 것입니다. 온전한 윤리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옳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제대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세계인류가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마귀의 영은 쫓겨지고 갈라지는 성품인고로 네 파, 내 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덩어리가 되는 역사이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건 다시보기

현금사기와 조작된 민사소송

승리제단 전 신도 최 모씨는 검찰의 비호 아래 현금도 하지 않은 사람들 16명을 규합하여 조희성 총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4년 형을 받게 했다는 것은 여러 번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하였다.

고소인들은 서로가 현금했다고 위증하면서 고소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고소인들이 거액의 현금 지급 재력이 없으므로 은행 계좌를 조사하여 거짓됨을 밝혀달라는 주장

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고소인들의 위증 및 거짓말만 인정한 매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고소인들의 녹취록에는 서로 거짓으로 위증하는 말이 있는데 한정액 재판장은 돈 빌려주는 것까지 웬 잔소리가 많냐고 야단치며 유죄로 판단하여 각본대로 재판하였다. 더욱이 시효가 지난 것을 거짓으로 짜고 현금했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검찰과 재판부는 확인할 생각도 아니하고 무조건 거짓된 고소를 인정하여 4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말을 바꾸어 제소한 민사청구 소송

더욱 역울한 것은 사기당했다고 주장하여 4년형을 씌운 자들이 이제 돈을 받을 욕심으로 말을 바꾸면서 현금했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조재석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내는 답변서를 보면 분명히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중으로 청구를 하고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검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을 목인하고 서로 거짓으로 짜서 현금을 했

으니 돌려달라고 하는 거짓된 재판을 재판장은 역시 그들을 비호하며 맞다고 인정하여 위자료까지 포함하고 또 이지는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5억6천만원의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들은 1998년 2월 2일자로 승리제단 본부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이니 언제든지 경매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 조건이었다.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으니 가슴이 쫓겨지는 것 같지만 지불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할5푼의 엄청난 이자가 가산이 되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돈을 가로챈 자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이다

옥고 중인 조 총재에게 말씀을 드리니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빨리 전국에 알려져 모금을 하여 지불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자가 엄청나게 붙어서 정말 제단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 빨리 서둘러라. 하늘의 역사를 가로 막은 자들과 천지공사에 쓰여질 금전을 탈취한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때는 그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해 달라고 할 것이나 소용없는 일이다. 무서운 형벌이 있을 뿐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 공권력과 짜고 승리제단을 무너뜨리려는 사기꾼들에게 알면 서도 생돈을 빼앗기는 어쩔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것이다.*

-승리진영에서 발췌 요약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라

승리제단에 입문하여 새식구교육을 받고나니 나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희성 구세주의 말씀을 들으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는 존재감을 상실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 저항심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은 나라는 존재가 작용하면 평화롭던 마음이 괴롭고 고달프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리제단의 대표적 수행법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생활의 수행법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아니면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차원을 넘어 상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은혜로써 임하여 상대가 하나님으로 변화해 감과 더불어 자신도 하나님으로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승리제단이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구세주가 성도들의 영을 각각 키워 가신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해 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셔서 은혜로 키워주셔야 그것이 진짜 영이 자라는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영을 키울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나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약자가 갈 수 있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심령을 관찰하여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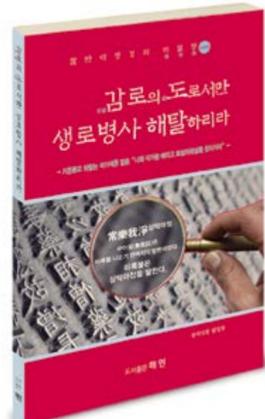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 열반경 상 보살마하살은 석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 불멸승 삼보는 진삼보(眞三寶)가 아니다.
-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지 못했다.
- 석가세존은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설하지 못했다.

기존불교를 뒤엎는 석가세존의 말씀,

“나와 석가를 버리고 보살마하살을 찾아가라”

새책이 나왔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 중



저자 석추담 스님 · 승리신문 편집부
정가 15,800원 · 도서출판 해인

팔만대장경의 비밀장(秘密藏) 수정판

감로의 도로서만 생로병사 해탈하리라

4지역 3개월 연속 1등

개인 1등 김수정



4지역 이영애 지회장님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에서는 11월 6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 10월 성적에 대한 시상상을 하였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 지회장: 이영애)
-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3등: 2지역(지역장: 서보복, 지회장: 김혜선)

- *구역 1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 3등: 38구역(구역장: 김정순)

- *개인 1등: 김수정
- 2등: 안경미 권사
- 3등: 김두식 승사*